



강릉원주대학교 한 송 총장님, 총장님의 열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유라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년

멋이란 한 글자를 정의하자면 얼마나 많은 설명과 수식어가 필요할까? 중국어인 풍류와 영어인 위트도 '멋' 일부분이라고 하니 멋의 크기가 방대하다. 여기 멋과 같이 짧은 말로는 미처 형용할 수 없는 큰 어른이 계신다. 우리대학 한 송 총장님이 바로 그분이다.

나는 우리대학 학보사 기자 활동을 하고 있어 총장님을 직접 뵈 기회가 있었다. 신문사 재창간 기념식이 그 날이다. 원주대학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교명을 바꿔 대학 신문 제호를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었다. 흰칠한 키에 풍채가 크고,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총장님께서 신문사의 앞날을 위해 포도주잔을 높이 드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토요일에 나오던 고전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아직도 포도주잔에 반사되는 햇살과 함께 어우러지던 총장님의 미소가 잊히지 않는다.

총장님은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OCU 컨소시엄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계신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다양한 대외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신다.

독서광이신 한 총장님은 책에서 얻은 지혜의 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질 높은 강의는 물론 저렴한 등록금과 재학생의 50% 이상이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풍부하고 든든한 장학제도로 우리들의 공부 여건을 향상시킨다. 이 모든 것이 대학 총장으로서, 교육자로서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대학을 만들고자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등록금을 동결하여 우리의 학비 부담도 덜어주셨다. 고마우신분이다.

우리대학은 2007년 3월 1일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의 통합을 역사적으로 이루어내고 올 3월 1일에는 '강릉원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는 대학 통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고, 이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학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대학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의 한가운데에 한밤중까지 열정을 불태우는 총장님의 부드럽지만 강한 리더십이 있다.

총장님은 통합과 함께 교육지원센터 신축과 원주캠

퍼스에 종합강의연구동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산학협력 관 신축을 위한 설계에 매진하고 계신다. 얼마 전에는 숙원사업이던 정문 확장 공사와 담장을 철거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립대학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셨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설 확충도 중요하다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또, 2009년 아시아대학평가 '논문당 인용 수' 국내 1위, 아시아 6위를 기록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입증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역량강화사업,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대학 등 다양한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총장님은 우리 대학이 큰 대학이 되어 학생 모두 넓은 세상으로 웅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지역화를 바탕으로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권을 연결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대학으로서 외국의 명문대학과 학술 협정을 체결하여 교수 및 학생 교환 및 유치, 공동

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으로 교직원의 연구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며, 각종 해외연수와 해외여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여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학교가 국제화를 선도하는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강자임을 인정받고 있다.

인자한 미소 너머로 총장님은 이제 우리 대학교가 선진교육의 메신저로서 장차 환동해권 중심대학을 넘어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우뚝 서는 비전에 대해 강한 집념을 보여주셨다.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강한 카리스마가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는 역동적인 에너지였다.

유명배우의 수상소감처럼 총장님이 잘 차려놓은 밥상을 나는 계속해서 맛있게 잘 먹으며 내 젊음과 꿈을 펼치고 있다. 총장님이 차리신 밥상은 나뿐 아니라 우리 대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까지 맛있는 식사가 되어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풍류와 위트, 교육과 학생, 지역과 세계를 모두 보듬어 안은 멋을 가진 우리 대학교 총장님이야말로 진정한 멋쟁이시다. ■■■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